

元·明交替期の 濟州島

- 牧胡亂을 중심으로 -

高昌錫*

目 次

- | | |
|-------------------|----------------|
| I. 序 言 | IV. 牧胡討伐과 耽羅問題 |
| II. 牧胡亂의 原因과 對元關係 | V. 結 論 |
| III. 麗·明通交와 馬匹要求 | |

I. 序 言

元은 濟州島에서 끝까지 항거하던 三別抄를 평정하여 그들의 直轄地로 삼는 한편, 軍馬 조달 등을 목적으로 牧場까지 開設하였다.¹⁾ 濟州島 목장은 元의 14개 목장 가운데 하나였으며 여기에는 元의 諸牧場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말·낙타·나귀·양 등을 放牧하였다.²⁾ 그러나 그 중심이 된 것은 말(馬)이었다. 말은 忠烈王 2년 耽羅達魯花赤으로 임명된 塔刺赤이 부임할 때 160 필을 가지고 와서 방목한 이래³⁾ 恭愍王 23年 明의 馬匹 요구에서 “耽羅에는 元朝에서 방

*人文大學 史學科 助教授

- 1) 元이 濟州島에 牧場을 開設한 年代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 즉 忠烈王 2년과 3년설이 있다. 「高麗史」만 하더라도 同書 卷 28 忠烈王 世家 2년 8월 丁亥條에는 ‘元遣塔刺赤爲耽羅達魯花赤 以馬百六十四匹來牧’이라 하였고 同書 卷 57 地理志 全羅道耽羅縣條에는 ‘忠烈王三年 元爲牧馬場’이라 하였다.
- 2) 「元史」卷 100 兵志 馬政條.
- 3) 「高麗史」卷 28 忠烈王 2년 8월 丁亥條.

목한 2~3만필의 말이 있고 또 孳生된 것도 많을 것이니 그 중에서 좋은 말 2천 필을 골라 바치라”⁴⁾고 한 것을 보면 상당수의 馬匹이 방목, 자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放牧地도 처음에는 水山坪, 즉 지금의 城山邑 水山里 일대에만 開設되었던 것이⁵⁾ 全島的으로 확장되고 이에 따라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東西阿幕이 설치되었다.⁶⁾ 阿幕은 일종의 牧舍이며 원래는 元의 東西哈赤이었던 것이 뒤에 변질된 것이다.⁷⁾ 哈赤은 일명 哈刺赤이라고도 하며 元에서는 千·百戶 중에서 선발되어 牧馬에 종사했던 軍職으로 父子가 代를 물리면서 그 職을 맡았다.⁸⁾

濟州島 목장에는 당초에 達魯花赤이나 斷事官·萬戶 등을 파견하여 목축을 주관하게 하였으나 뒤에는 馬匹 사육 전문가인 牧胡가 파견되었고⁹⁾ 이들 중에서 愛馬·孳長官·提領 등의 職名을 가진 哈赤이 각 阿幕에 駐在하고 있었다.¹⁰⁾ 결국 이들 牧胡 혹은 哈赤이 恭愍王代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세력이 더욱 강성하여 叛亂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本稿는 牧胡의 亂을 중심으로 하여 元·明交替期에 있어서의 濟州島 문제와 그와 관련된 麗·元, 麗·明 관계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牧胡亂의 原因과 對元關係

牧胡(일명 牧子)는 元에서 濟州島 목장에 파견하여 牧馬에 종사케 했던 蒙古人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얼마나 파견되었는지 이에 대해 상세히 전해 주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恭愍王代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세력이 더욱 강

4) 註 65 參照.

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 旌義縣條.

6) 李元鎮：「耽羅志」 建置沿革條.

7) 金正浩：「大東地志」 卷 12 濟州牧場條.

8) 「元史」 卷 100 兵志 馬政條.

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 土產條.

李元鎮：「耽羅志」 建置沿革條, 金錫翼：「耽羅紀年」 忠烈王 26 年條.

10) 「朝鮮王朝實錄」 卷 15 太宗 8 年 正月條.

성하여 자주 국가에서 보낸 牧使와 萬戶 등 官吏를 죽이고 난을 일으켰다.¹¹⁾ 이미 元에서는 三別抄를 평정한 후에 濟州島를 그들의 直轄地로 삼아 관리하기 위해, 또는 日本 정벌을 목적으로 高麗人 병사와 함께 蒙古人 병사를 주둔시킨 바 있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蒙古人(漢人 포함) 罪囚를 流配하기도 하였다. 蒙古人 병사 중에는 高麗人 병사와 교체되어 귀국한 사람들도 있으나¹²⁾ 잔존한 대부분의 병사나 유배되어 온 죄수들은 결국 牧胡로 화하였거나 牧胡에 合勢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忠惠王代부터 濟州島에 출몰하기 시작한 倭寇들도 이 무렵에 와서는 牧胡들과 合勢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¹³⁾ 그러므로 牧胡의 세력은 자연히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強勢를 이용하여 자주 난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 난의 주된 요인은 元·明交替기에 즉위한 恭愍王의 排元政策이나 舊疆收復政策, 濟州島의 잦은 歸屬問題, 馬匹의 進獻問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濟州島를 宣撫하기 위해 파견된 官吏들이 대개가 貪慾이 많고 暴惡하여 백성들이 이를 괴롭게 여겼기 때문에 牧胡들이 그들을 꺾어 亂을 일으켰다.”¹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牧胡의 亂은 恭愍王 5년(元 順帝 至正 16, 1356)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즉 《高麗史》에

「濟州의 加乙赤 忽古托 등이 叛하여 都巡問使 尹時遇·牧使 張天年·判官 李陽吉을 죽였다.」¹⁵⁾

고 한 것이 그것이다. 加乙赤 忽古托 등이 亂을 일으킨 것은 《高麗史》에는 恭

11) 「高麗史節要」 卷28 恭愍王 16年 2月條.

12) 拙稿: “麗元과 耽羅와의 關係” 「濟州大學論文集」17, 1984, pp.390~392.

13) 註 39·54 參照.

14) 註 40 參照.

15)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10月 丙子條. 그런데 岡田英弘은 加乙赤에 대해서 그 原語는 상세하지 않지만 牧子의 뜻인 것 같다고 하였다(同: “元の 順帝と 濟州島” 「アジア文化研究論叢」 1, 國際基督教大學, 1958). 그리고 金正浩의 「大東地志」 卷12 濟州 牧場條에는 加乙赤을 訛赤으로 기록하였고, 金鍾權도 「完譯高麗史(世家篇)」(廣東出版社 1975) p.378에서 訛赤으로 번역하였다.

愍王 5년 5월 親元派 奇轍 일당이 誅殺된 후 同年 6월에 麗廷에서 尹時遇를 파견하여¹⁶⁾ 奇轍 등의 作亂에 관계된 牧胡들은 究問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즉 이러한 사실은 후일 高麗와 明과의 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高麗에서는 恭愍王 19년 7월에 三司左使 姜師贊을 明에 파견하여 여러 가지 當面問題를 計稟한 바 있는데, 그 중 濟州島 문제에 관하여는,

「…奇氏 형제가 亂을 꾀하다가 伏誅되었는데 그 供辭에 “耽羅의 達達牧子 忽忽達思가 연관되었다” 하므로 그 사실을 究問하기 위해 前 贊成事였던 尹時遇 등을 파견하였던 것인데 모두 피살되었다.」¹⁷⁾

고 한 데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末松保和가 지적한 것처럼 北方에 있어서의 雙城收復에 대한 변명으로 奇轍 등이 耽羅 牧胡와 결탁했다고 한 것은 근거 없는 구실에 불과하다.¹⁸⁾ 尹時遇를 濟州都巡問使로 파견한 것은 耽羅 經營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¹⁹⁾ 이것은 이에 앞서 20여일 전에 이미 착수한 印璫·柳仁雨 등의 東北面 및 西北面 攻略의 사실과도 아울러 생각해야 할 중대 사실로서 前者를 都巡問使, 後者를 兵馬使로 삼은 차이일 뿐 남북 相應하는 元勢力 구축의 기도였다.²⁰⁾ 즉 恭愍王은 奇轍 등의 族黨을 처단하던 그날로 (5월 13일) 征東行省理問所를 혁파하는 동시에 評理 印璫을 西北面兵馬使로, 密直副使 柳仁雨를 東北面兵馬使로 각각 임명하여 鴨綠江 以西의 8站과 雙城(永興) 등지를 攻略收復케 하였다.²¹⁾ 鴨綠江 以西의 8站은 高麗에서 遼陽으로 통하는 주요 교통로의 요충이며, 雙城은 高宗 45년에 趙暉·卓靑 등이 和州(永興) 이북의 땅을 들어 元에 降附하자 元에서는 和州에 雙城總管府를 두어 지금의 咸南 일대를

16) 「高麗史」 卷39 恭愍王 5年 6月 庚申條.

17) 註 46 參照.

18) 末松保和：“麗末鮮初に於ける對明關係” 「史學論叢」 2, 1941, pp.30~31.

19) 岡田英弘：前掲論文 p.57.

20) 末松保和：前掲論文 pp.30~31.

21) 金庠基：「高麗時代史」(東國文化社 1961) pp.713~714. 그런데 濟州島는 忠烈王 31년에 다시 高麗에 환부되었었다(高麗史 地理志 耽羅縣條).

통할하여 왔다. 그리고 濟州島인 경우는 당초 元이 三別抄를 평정한 후 招討司·耽羅總管府·軍民安撫司 등의 官府를 차례로 설치, 變改하며 관할하여 오다가 忠烈王 20년 일단 高麗에 환부하였다. 그러나 元에의 貢馬만은 의연히 계속하도록 하다가 同王 26년에는 다시 元에서 耽羅總管府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아마 貢馬 부진 등의 이유를 들어 元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취해진 조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해 7월에는 高麗의 요청으로 軍民萬戶府로 변경하고 高麗에서 官吏를 파견하였으나 그 관할만은 征東行省으로 이양되었다. 당시 征東行省은 그 長에 있어서 高麗王이 겸하고 있다고는 하나 高麗政府와는 전연 별개의 기관이었다.²²⁾ 그러므로 恭愍王은 재래의 對元 관계를 형식면에 있어서도 타파하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 元의 年號(至正)사용을 정지했는가 하면(6월), 또 官制, 官職의 명칭도 대개 文宗 시대의 것으로 復舊하였다(7월). 이러한 소식에 접한 元에서는 高麗의 使臣을 가두고 “80萬兵으로 來討하겠다”고 聲言하는가 하면(6월), 使臣을 파견하여 변강 침략을 들어 詰問하는 등 여러 가지로 高麗를 위협하였다. 이에 恭愍王은 “奇轍 등을 베풀 것은 그들이 不軌를 꾀한 까닭이라”하고 “변강이 시끄럽게 된 것은 실로 本意가 아니라”는 뜻을 밝히는 한편,²³⁾ 使者를 楊廣 全羅道에 파견하여 濟州人과 禾尺·才人을 刷出하여²⁴⁾ 西北面 戊卒에 補編시키는 등 元의 來攻에 대비하였다(9월). 이와 같이 高麗의 태도가 和戰 양면에 걸쳐 적극화하자 內亂에 허덕이고 있던 元에서도 별 도리가 없었던지 同年 10월에 다시 使臣을 보내어 高麗의 허물을 寬容한다는 의미의 元 順帝의 詔書를 전하고 高麗의 舊疆回收 등 사태를 은연히 시인하기에 이르렀다.²⁵⁾ 결국 加乙赤 忽古托 등의 亂은 이러한 恭愍王의 排元政策과 舊疆收復 등의 처사에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恭愍王 6년 2월에 濟州島에서 사람을 보내어 항복하고 方物을 바침으로써²⁶⁾ 亂은 약 6개월만에 수습되었으며 同年 7월에는 또 濟州 星主가 말

22) 拙稿：前掲論文 pp.382～389.

23) 金庠基：前掲書 p.715.

24) 「高麗史」卷39 恭愍王 5年 9月 庚辰條.

25) 金庠基：前掲書 p.716.

26) 「高麗史」卷39 恭愍王 6年 2月 辛亥條.

을 바치므로 恭愍王도 이에 답하여 蓋·紅鞵·쌀 30석을 하사하였다.²⁷⁾ 이것은 亂이 있는 직후임을 감안하여 그들을 무마하고자 한 일종의 회유책이었다. 그리고 同年 9월에는 濟州牧使 林熙載에게 安撫使를 겸하게 하였다.²⁸⁾

그후 恭愍王 11년(元 順帝 至正 22, 1362) 8월에는 牧胡인 古禿不花·石迭里必思 등이 다시 亂을 일으켰다.²⁹⁾ 高麗는 바로 前年에 鴨綠江을 건너 침입한 紅巾賊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고 한때 國都 開京이 함락될 정도로 어수선한 때였다. 그러므로 古禿不花 등의 亂은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일어난 것이었다.³⁰⁾ 그리고 亂을 일으킨 古禿不花·石迭里必思 등이 濟州島를 元에 예속시켜 주도록 요청—濟州島는 忠烈王 31년에 高麗에 환부되었었다—한 것은 당시 말쟁의 素地가 많은 牧胡에 대해 암암리에 압력이 가해졌던 때문으로 보아진다. 더우기 元의 奇皇后는 本國에서 奇氏一族이 敗沒되자 늘 恭愍王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며 그 무렵에 本國에서 뜻을 잃고 元에 건너가 있던 崔瀾는 奇皇后의 그러한 심정을 알고 燕京에 있던 여러 高麗人 不逞輩와 더불어 奇皇后를 달래어 恭愍王을 폐하고 德興君 塔思帖木兒(忠宣王의 第3子)를 세우려고 꾀하던 때였다.³¹⁾ 그러므로 이때 元에서는 副樞 文阿但不花를 耽羅萬戶로 삼아 파견하였고, 그는 賤隸 金長老(高麗의 前侍中 尹桓의 家奴)와 함께 부임한 후 前耽羅萬戶 朴都孫을 살해하였다.³²⁾ 金長老는 앞서 奇轍 등에게 붙어서 本國을 謀害하던 자였다.³³⁾ 이에 高麗에서는 同年 12월에 成俊德으로 濟州牧使를 삼아 파견하는 한편 密直副使 柳芳桂를 文阿但不花의 接伴使로 삼아 濟州島에 가서 그를 위로케 했는데³⁴⁾ 그것은 文阿但不花가 元에서 濟州島로 부임할 때 韓

27) 同上書 同王 6年 7月 壬寅條.

28) 同上書 同王 6年 9月 庚寅條.

29) 同上書 卷 40 恭愍王 11年 8月 丙申條.

그런데 岡田英弘은 古禿不花를 本稿의 뒤에 나오는 肖古禿不花와 同一人物로 보았다. 그 이유로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 姓氏條의 石·肖는 元姓이기 때문이라 했다(同: 前揭論文 p.57).

30) 岡田英弘: 前揭論文 pp.57~58.

31) 金庠基: 前揭書 pp.720~721.

32) 「高麗史」 卷 57 地理志 全羅道耽羅縣條.

33) 註 46 參照.

34) 「高麗史」 卷 40 恭愍王 11年 12月 丙子·癸巳條.

半島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海路를 이용하였기 때문이었다.³⁵⁾ 결국 이 사건으로 濟州島는 元에 예속되었으며 恭愍王의 牧胡 토벌 정책도 일단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耽羅萬戶로 부임한 文阿但不花가 다음 해 6월에 동생 仁富를 開京에 보내어 羊·馬를 바친 것은³⁶⁾ 恭愍王의 接伴使 파견에 대한 答禮일 뿐 아니라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한편 恭愍王도 元의 國勢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軍士를 동원하여 濟州島의 牧胡 토벌을 감행하였다. 즉 恭愍王 15년 10월에 全羅道 都巡問使 金庾가 병사를 모집하고 兵船 100 척을 얻어서 濟州牧胡를 토벌한 것이다.³⁷⁾ 그러나 결과는 실패로 끝났고 이를 기화로 牧胡들은 오히려 元에 萬戶府를 설치해 주도록 요청하였다.³⁸⁾ 그러나 高麗도 외교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恭愍王 16년 3월에는 元으로부터 濟州島를 환부반기에 이르렀는데 《高麗史》에는

「元使 高大悲가 濟州로부터 왔다.(順)帝는 王에게 綵帛과 錦絹 550필을 하사하고 宰樞에게도 차등이 있었다. 당시 (順)帝는 濟州島로 피난하고자 하여 御府의 金帛을 실어오고 이에 詔書하여 濟州를 다시 高麗에 소속시켰다. 때에 牧胡가 자주 국가에서 보낸 牧使와 萬戶를 죽이고 叛하였는데 金庾의 牧胡 토벌에 미쳐, 牧胡가 元에 호소하여 萬戶府 설치를 요청하였다. 王이 上奏하기를 “金庾가 실상은 濟州를 토벌한 것이 아니라 捕倭하기 위해 쫓아서 州境까지 갔다가 나무를 하였는데 牧胡가 망녕되이 疑惑을 내서 서로 싸우게 되었을 뿐이라”하고 “本國으로 하여금 스스로 牧使·萬戶를 파견하여 牧胡가 기른 말(馬)을 가려서 전과 같이 바치게 해달라”고 청하여 (順)帝의 허락을 받았다.」³⁹⁾

고 하였다. 元使 高大悲가 濟州로부터 왔다는 것은 恭愍王 11년의 文阿但不花와 마찬가지로 海路를 이용하여 濟州島에 왔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에 元은

35) 岡田英弘：前掲論文 p.58.

36) 「高麗史」卷40 恭愍王 12年 6月 戊申條.

37) 同上書 卷41 同王 15年 10月 丙辰條.

38) 同上書 同王 16年 2月 癸亥條.

39) 同上書 同王 16年 4月 庚申條.

濟州島를 高麗에 復屬시킨 것이다. 이것은 元의 입장에서 본다면 커다란 양보일 것이나 당시 高麗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濟州島를 희생하는 것도 당시 元의 國勢로는 부득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元의 濟州島 관할이 때로는 直轄地로 삼고 때로는 高麗에 환부하여 일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三別抄 정벌 직후, 元에 예속된 이래 前後 약 100년간 반복되었다. 그리고 金庾의 牧胡 토벌 사실을 변명하여 倭寇를 잡으려고 濟州島에까지 갔었다는 것은 牧胡와 倭寇와의 合勢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 예라 할 것이다. 결국 濟州島를 高麗에 환부하여 高麗로 하여금 官吏를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면서도 馬匹만은 전과 같이 進獻케 한 것은 忠烈王 20년의 환부 때와 같으며 또한 여기에서 元이 濟州島에 牧場을 설치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恭愍王 16년 4월에는 典校 舍 林樸을 파견하여 濟州를 宣撫하게 하였는데 《高麗史》 林樸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林樸이 濟州에 이르러 萬戶에게 이르기를 “達達牧子가 反側하기를 좋아하니 君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 撫綏하여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라” 하고 또 星主·王子에게는 “그대들은 곧 神人의 후예인데 新羅에 들어와 星主가 되었고 本朝에 들어와 王子가 되어 歷代를 服事하매, 역대가 또한 그대들을 대우함이 심히 후하였다. 마땅히 그대들은 자기 한 마음으로 服事하여 牧子와 더불어서 變을 선동하지 말라” 하니 이에 星主·王子 및 軍民이 모두 俯伏하여 “감히 命에 따르지 아니 하리요” 하였다. 이보다 앞서 宣撫하러 오는 자는 대개 탐욕이 많고 포악하여 그 侵漁를 恣意로 하니 백성들이 심히 이를 괴롭게 여겼으므로 牧胡가 이들을 꾀어 자주 叛하기를 좋아하였다. 林樸은 부임하는 길에 羅州에 들러 물을 항아리에 담아가서 비록 차 끓인 것조차도 입에 넣지 않으니 그곳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르기를 “聖인이 오셨다. 王의 官員들이 모두 林宣撫만 하다면 우리들이 어찌 叛하기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濟州 사람 중에는 그가 물까지 길러 간 것을 譏弄하는 자도 있었다.”⁴⁰⁾

이 상에서 본다면 당시 濟州島의 土豪 세력도 牧胡의 亂에 合勢했음을 시사하

40) 同上書 卷111 林樸傳.

고 있으며 거기에다 官吏들의 비행으로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牧胡의 亂에 가담하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牧胡의 亂은 이후에도 여전했던 듯, 恭愍王 18년에도 그 亂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牧子 哈赤들이 발호하여 官吏를 살해한 기록이⁴¹⁾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同年 9월에는 그들이 항복하므로 朴允清을 牧使로 삼아 파견하였다.

그런데 元末 濟州島와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元의 順帝가 만일의 경우 濟州島로 피난하기 위해 御衣酒使 高大悲를 파견하여 피난 宮室을 세우기 위한 御府의 金帛을 濟州島로 수송하였다는 것이다. 그 元使 高大悲가 恭愍王 16년 3월에 上京하여 王과 宰樞들에게 順帝의 下賜品을 전달했음은 이미 前述한 바이며 《高麗史》에는 또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때에 王은 元朝의 梓人 元世 등을 濟州島에서 불러 影殿을 짓게 하였다. 元世 등 11인은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元世는 宰輔들에게 이르기를 “元의 皇帝가 土木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民心을 잃고, 또 스스로 四海를 保全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에 우리들에게 命하여 耽羅에 宮室을 짓게 해서 피난의 計策을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마치기 전에 元이 망해서 우리들은 衣食을 잃었는데, 이제 부름을 받아 다시 衣食을 하게 되니 千萬多幸입니다. 그러나 元이 廣大한 天下를 가지고도 民心을 잃고 망했으니 高麗 또한 크다 하나 民心을 잃지 않는다고 하오리까? 원컨대 諸相은 王에게 건의하소서” 라고 하였으나 宰輔 가운데 아무도 건의하지 않았다.»⁴²⁾

고 하였다. 이것은 恭愍王이 亡妃 魯國大長公主의 影殿을 짓고자, 元에서 濟州島에 避難宮殿을 짓기 위해 파견되었던 元世 등 11인의 목수를 서울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元에서는 避難 候補地의 선정을 목적으로 帖木兒卜花·李致剛 등을 파견했었다. 그것은 貝瓊의 「耽羅志略後序」에 副樞 帖木兒卜花의 耽羅奉使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⁴³⁾ 즉 “帖木兒卜花는 李至剛을

41) 同上書 卷 57 地理志 全羅道耽羅縣條.

42) 同上書 卷 41 恭愍王 18年 9月 辛酉條.

43) 岡田英弘：前掲論文 pp.58 ~ 59. 「耽羅志略」은 帖木兒卜花와 동행했던 李至剛의 著述이나 지금은 전해오지 않고 다만 元末의 名儒 貝瓊의 文集인 「雲

동반하고 恭愍王 14년(元順帝 至正 25, 1365) 10월에 杭州에서 출발하여 濟州島에 왔다가 同王 15년 6월에는 다시 濟州島에서 귀국 도중 바람을 만나 松江에 도착하였다”한다. 恭愍王 15년 6월은 金庾가 濟州 牧胡를 토벌하기 4개월 전이다. 그리고 李至剛을 松江에 남겨두고 大都로 돌아간 帖木兒卜花가 復命한 恭愍王 16년 2월에는 이미 피난소의 營造에 관한 사실이 前述한 바와 같이 《高麗史》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帖木兒卜花의 耽羅奉使는 바로 이 피난소 후보지의 선정 및 그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⁴⁴⁾ 그러나 恭愍王 17년 8월에는 明의 徐達 장군이 이끄는 군사에 의해 元의 수도인 大都가 함락됨으로써 元은 사실상 망하였고(이후 北元이 얼마동안 존속함) 이에 따라 피난 궁전의 營造도 중단되고 만 것이다. 이해가 곧 明의 太祖 洪武 元年(1368)이다.

Ⅲ. 麗·明通交와 明의 馬匹要求

高麗와 明과의 외교 관계는 恭愍王 18년(明 太祖 洪武 2, 1369) 高麗가 元의 <至正>이란 年號 사용을 금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⁴⁵⁾ 그 후 明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었으며 그 한 예가 恭愍王 19년 7월 三司左使 姜師贊을 明에 보내어 冊命과 璽書를 보낸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함과 아울러 元에서 내린 金印을 바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에 濟州島에 관한 問題를 計稟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이켜 보건대 耽羅는 이 高麗인이 開國한 이래로 州를 두어서 牧을 삼았는데 近者에 燕(元)에 통한 뒤로 前朝(元)가 그 곳에서 牧馬함이 있었으나 다만 水草의 풍요함에만 資賴하였고 그 封疆은 본래대로였습니다. 近者에 奇氏

問集》卷 7에 ‘耽羅志略後序’라는一文이 보일 뿐이다. 그 일부분을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耽羅距中國萬里 而不載於史 蓋以荒遠略之也。至正二十五年 樞密院椽曹永嘉李至剛 從副樞帖木兒卜花公 往守其地 明年奉詔還京師 至剛以病不得俱 滄留松江 因記所歷山川形勢民風土產 編而成集 蓋爲三卷 題曰耽羅志略… 故至剛得與大臣涉海萬里而鎮撫其民…’

44) 同上論文 pp.58 ~ 59.

45) 「高麗史」 卷 41 恭愍王 18年 5月 辛丑條.

형제가 亂을 꾀하다 伏誅되었는데 그 供辭에 耽羅의 達達牧者인 忽忽達思가 연관되었다 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究問하였는데 宰相 尹時遇 등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후 前侍中 尹桓의 家奴 金長老가 前賊에 붙어서 本國을 謀害하다가 모두 다 伏罪하였습니다. 섬이 비록 작아 보잘것 없으나 백성들이 자주 驟然하게 되니 病根이 있는 한 醫術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容光의 日月을 體하시고 同器의 蕪蕪를 가려서 前朝의 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에서 방목한 마필과 驛子 등을 濟州의 官吏로 하여금 元籍에 照會하여 土人들에게 책임지워 맡겨서 목양케 하여 시절따라 진헌토록 하시고, 그 達達牧子 등도 또한 本國으로 하여금 어루만져 良民을 삼게 하시면 聖朝 馬政의 官에게 어찌 小補가 되지 않으리까. 그리고 小國 백성들도 다소 안정될 것이오니 구구한 情을 어찌 감히 緘默하오리까.』⁴⁶⁾

즉 濟州島는 高麗가 開國한 이래로 州를 두어서 다스려 왔기 때문에 元에서 목장을 개설하였지마는 영토 관계는 여전히 高麗에 예속되었다는 것, 최근 奇氏 형제의 謀亂에 濟州의 達達牧子가 관계있음을 알고 그를 究問하기 위해 官吏를 파견하였으나 다 牧胡에게 피살되었다는 것, 또 本國人으로서 그들과 黨附해서 謀害한 자가 있었다는 것, 前朝의 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 등에서 방목한 馬匹과 驛子 등은 濟州에 있는 官吏로 하여금 本台張에 따라 목양의 책임을 지게 하여 시기에 맞추어 進獻케 하고, 강폭하여 자주 亂을 일으키고 있는 達達의 牧子 등도 本國이 책임을 지고 어루만져 良民을 삼게 할 것 등을 교섭하였다. 이것은 濟州島의 소속문제, 馬匹의 所管 내지 進獻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濟州島는 목장 관계로 元과 오랜 관련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蒙古의 牧子와 牛馬 등이 있으므로 이제 元을 몰아내고 中原을 차지한 明에서는 곧 濟州島의 歸屬 문제를 들고 나올 형세이므로⁴⁷⁾ 高麗에서 이와 같이 明에 대하여 먼저 親明的 외교 관계를 제안한 것이다. 이리하여 恭愍王 21년 3월에는 濟州產 馬匹을 정기적으로 明에 進獻키로 한 약속에 따라 禮部尙書 吳季南을 明에 보내어 말을 바치게 하였을 때, 明에서는 秘書監 劉景元을 宥旨別監 曺揀選 御馬使로 삼아 吳季南과 함께 濟州島에 가서 馬匹을 징발케 하였다.⁴⁸⁾ 그러나

46) 同上書 卷 42 同王 19年 7月 甲辰條.

47) 金庠基 : 前揭書 p.732.

48) 「高麗史」 卷 43 恭愍王 21年 3月 甲寅條.

同年 4 월에 牧胡인 石加乙碑·肖古道甫介 등이 東西哈赤이라 자칭하고⁴⁹⁾ “元帝의 命이 아니고는 明에 送馬하려는 馬匹 揀擇에 응할 수 없다” 하여⁵⁰⁾ 揀選御馬使 劉景元·牧使 겸 萬戶 李用藏·權萬戶 安邦彥 및 兵士 300 여명을 죽이고 叛하므로 吳季南은 몸을 피해 돌아오고 말았다. 이리하여 明에의 馬匹進獻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高麗에서는 同月에 禹仁烈을 濟州 體覆使로 삼아 파견하여 事實의 眞否를 審察케 하는 한편,⁵¹⁾ 民部尙書 張子溫을 明에 보내어 濟州島 정벌을 요청하는 表文을 올리게 했는데, 그 講討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海邦이 비록 누추하나 오직 上國을 섬기는 마음을 아는데 島夷가 공손하지 못하여 감히 朝天의 길을 막으므로 이에 어리석은 懇誠을 다하여 우리의 聰聞을 仰瀆하나이다. 엇드려 생각컨대, 臣이 나라를 다스리는 方途에 어두어 일찌기 徑情의 請을 하여 이르기를 耽羅의 安業을 위하여는 韃靼人을 移居시키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고 하였던 바, 이에 詔書를 받드니 烹鮮의 訓을 보여 주었으므로 條約을 欽遵하여 그 安堵한 생활을 이룩하도록 하였나이다. 그런데 貢獻의 시기가 늦어진 것은 陳告컨대, 本意가 아니옵니다. 금년 3월에 陪臣 禮部尙書 吳季南을 보내어 耽羅에 가서 馬匹을 싣고 明京에 나아가 바치도록 하였는데, 倭賊이 海上에 있으므로 弓兵 425명을 보내어 防送하였더니 뜻밖에도 韃靼의 牧子 등이 먼저 보낸 秘書監 劉景元과 濟州牧使 李用藏·判官 文瑞鳳·權萬戶 安邦彥 등을 모두 잡아 죽이고, 吳季南이 도착하자 또 먼저 上陸한 弓兵 300 여명을 잡아 또한 다 죽이니 이로써 吳季南은 나아가지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變故이매 의리상 마땅히 가서 그 事由를 訊問할 것이나 아직 奏陳하지 못하였고, 또 禮에 마음대로 興兵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다만 愧赧이 더할 뿐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엇드려 바라건대, 멀리 日月의 明을 내려 興國의 넓음을 한번 보시고, 臣이 效忠하는 實蹟을 밝히 하시고, 臣이 抱屈하는 情을 憐愍히 여기사, 굽어 德音을 頒布하여 이 일을 區處하여 주시면 臣의 感戴함이 때를 갈아선들 어찌 잊으리까? 라고 하였다.」⁵²⁾

49) 金錫翼: 「耽羅紀年」 恭愍王 21年條. 「朝鮮王朝實錄」 世宗 元年 7月條에는 ‘石加乙卑·肖古道甫介’를 ‘肖古獨不花·石加乙非’로 기록하였다.

50) 金泰能: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完)” 「제주도」 19, 1965, p.146.

51) 「高麗史」 卷 43 恭愍王 21年 4月 壬辰條.

52) 同上書 同王 21年 4月 壬寅條.

즉 島夷가 공손하지 못하여 朝天의 길을 막는다는 것, 耽羅의 安業을 위해서는 韃靼人을 移居시켜야 한다는 것, 貢獻의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한 해명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韃靼人의 移居에 관한 요청은 처음 姜師贊이 計稟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 表文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또 詔書에 烹鮮의 訓을 보여 주었다고 한 것은 明太祖의 回信 내용일 것이나 計稟使 姜師贊이 귀국해서 여하히 복명했는지 전연 전하는 기록이 없다.⁵³⁾

明에 갔던 張子溫은 吳季南과 함께 同年 9월 귀국하여 耽羅에 관한 明太祖의 親諭 및 手詔를 전달하였다. 우선 그 親諭의 내용을 보면,

「前年에 너희 나라에서 耽羅牧子의 일로 表文을 보내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耽羅의 牧子는 元朝의 達達人으로 본래 牧畜을 業으로 하여 농업을 알지 못하며 또 오랜 세월을 두고 耽羅에서 生長하여 그곳을 樂土로 삼아 생활하여 온 무리들이다. 그들이 종전에 너희 나라에서 보낸 尹宰相을 죽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탄일을 저지름까 염려하여 용서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그 무리들이 또 이와 같은 亂을 일으켰단 말인가. 내가 지금 國王 앞으로 勅書를 보내니 네가 돌아가거든 國王에게 그들을 輕忽히 하지 말고 크게 軍馬를 일으켜 모조리 토벌 하도록 하라고 자세히 말하라. 내 듣건대 너희 땅에 倭賊이 마음대로 劫掠하며 濱海 주민이 피난하여 숨고 능히 막아내지 못하여 이 賊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와 노략질하게 한다 하니 진자에 내가 이곳에서 沿海의 守禦官에게 엄명하여 倭賊船 13척을 捕獲하였다. 만약에 耽羅牧子들이 이들 倭賊과 서로 合勢하게 된다면 토벌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이다.」⁵⁴⁾

라고 하였고 그 手詔에는

「7월 25일에 張子溫이 이르러 表文에 말하기를 “耽羅의 牧子가 無禮하여 官吏와 軍兵이 비명에 죽었다고 하니 매우 恨怒할 일이다. 春秋의 法에 亂臣 賊者는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 牧子가 이와 같을진대 마땅히 誅討해야 할 것이나, 나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蜂蠆의 毒이 있는지라, 비록 저들을 다 멸한다 하더라도 이 쪽에 있어서도 반드시 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대저 기왕의 과실은 小事로 因하여 大禍를 얻음이니 애석한 일이다. 그 國政을 처리함에 시급한 일이 아닐진데 情에 지극히 심한 일은 기피함이 어

53) 末松保和：前掲論文 pp.32 ~ 33.

54) 「高麗史」 卷 43 恭愍王 21年 9月 壬戌條.

며할꼬. 일이 이와 같을진대 王은 우물쭈물 모욕만 당할 수 없는 터이라 빨리 군사를 내어 칠 것이로되 그러나 일의 완급은 잘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라.]⁵⁵⁾

고 하였다. 즉 濟州島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牧胡의 亂에 대해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한 것이나 일의 완급을 잘 살펴서 도모하도록 하고 특히 耽羅牧子들이 倭寇와 합세하게 된다면 토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張子溫 등이 奉使해서 이상과 같은 明 太祖의 親諭와 手詔를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약 5개월 사이에 濟州島의 사정은 어떠했던가? 濟州島에서는 同年 6월에 濟州人 스스로가 앞서 劉景元·李用藏 등을 살해한 叛賊을 죽이고 항복하였는데, 사건 당시 도망해서 죽음을 면한 判官 文瑞鳳을 추대하여 權知牧使(임시 署理牧使)로 삼고 사람을 麗廷에 보내어 命을 청하였다.⁵⁶⁾ 그리고 이때에 말도 진헌하였다. 이에 麗廷에서는 李夏生을 安撫使로 삼아 파견하는 한편⁵⁷⁾ 同年 11월에는 大護軍 金甲雨를 明에 보내어 耽羅馬 50필을 바쳤는데⁵⁸⁾ 이것은 그 항복의 결과였다. 그런데 金甲雨는 譯語 吳克忠과 함께 다음 해 12월 明에서 귀국하자마자 誅殺되었다. 그 이유는 末松保和編의 《吏文》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洪武 5년(恭愍王 21) 11월에 王旨를 받들고 濟州에 가서 進獻馬 50필을 정발케 하였다. 다음해 正月 初9일 濟州에 도착하여 達達牧子 肖忽禿不花의 處所에서 雜色馬 50필을 揀選하였다. 同年 3월 12일 배에 싣고 출항하여 羅州에 도착하였는데, 말(馬) 9필과 船隻을 倭賊에게 빼앗겼다. 또 한필은 배에서 病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즉시 通使 吳克忠으로 하여금 都評議使司에 보고케 했다. 그 결과 按廉使가 말 10필을 和買하여 50필의 수효를 채우게 하였다. 同年 7월 3일 배에 싣고 출항했으나 바람을 만나 말 2필이 倒死해 버렸다. 10일 아침 濟州에 停泊해서 馬匹를 내리었다. 本州의 安撫使 李下(夏)生·萬戶 觀音普가 말 2필을 주어서 50필을 채웠다. 또 한필을 더 주면서 도중에 결손이 나면 채우라고 하였다. 甲雨는 모두 收領해서 8월 24

55) 同上.

56) 同上書 同王 21年 6月 戊戌條.

57) 同上.

58) 同上書 同王 21年 11月 壬申條.

일 濟州를 떠나 9월 10일에 明州府 定海縣에 도착하였다. 인수인계를 해보니 50필외에 한 필이 남으므로, 이를 자기것이라 속이고 東宮에 바쳐서 回賜를 얻고자 吳克忠과 모의했다. 俞德兵·朱德兵이 差割를 대조해 보고 “해당 馬匹은 50필인데 어찌하여 한 필이 더 있느냐”고 하자 甲雨는 “이 한 필은 자기것으로 東宮에 바치려고 가져온 것이라” 하였다. 각 官은 이 말을 믿고 知縣으로 하여금 馬匹을 운송케 하였다. 도착 3일째에 이르러 棗驪驕馬 한 필이 倒死하였고, 鎮江에 이르러 또 黃花驪馬 한 필이 倒死하였다. 10월13일 會東館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말 48필을 中書省의 官에게 진헌하고 또 沿路에서 죽은 말의 가죽 2장과 文憑을 禮部에 바쳤다. 당일 甲雨는 丞相을 만나 나머지 貢馬 한 필을 자기것이라 하고 東宮에 바치려고 한다 하였다. 그러나 丞相이 기미를 알아차리자 바치지 못하고, 이후 돌아오는 길에 萊州에 와서 팔고 그 돈으로 生絹 5필, 木絹 4필, 紅紵絲의 衲襖 1건을 사서 자신의 用度로 하였다. 이러한 明의 中書省의 移文을 받은 王은 甲雨를 심문케 하였다. 그러나 甲雨는 사실을 감추고 觀音普·萬戶를 사칭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노자로 준 것이며 돌아와서는 鴉青段子和 綿上蓋 1件을 回奉키로 했다 하였다. 그러나 재차 심문하자 숨기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 놓았다.⁵⁹⁾

더우기 明太祖는 金甲雨의 所行을 恭愍王에게 전하여 “이와 같은 使者의 所行을 王은 마땅히 懲治하고 今後의 使者는 반드시 독실한 사람을 택해 命을 받들게 하라”고 힐난하였었다.⁶⁰⁾

이에 앞서 麗廷에서는 恭愍王 22년 7월 判繕工寺事 周英贊을 明에 보내어 千秋節을 賀禮하고 아울러 濟州牧胡 肖忽禿不花가 바친 말 19필과 노새 2필을 바치도록 하였다.⁶¹⁾ 그러나 倭寇에게 막히어 출발하지 못하다가 月末에 賀正使 鄭庇와 함께 陸路로 출발했으나 定遼衛에서 拒否되어 돌아왔다.⁶²⁾ 다음 해 7월에 다시 密直副使 鄭庇·判繕工寺事 周英贊을 파견하여 洪武 7년의 正朝를 賀禮하게 하고 또 濟州의 馬匹을 진헌케 하였다. 그 行路는 앞서 明에 갔던 姜仁裕 등이 귀국할 때 내린 明帝의 宣諭에 “今後부터는 바다를 통해 오는 일이 없

59) 末松保和：「吏文」（朝鮮印刷株式會社 1942）卷2 ‘獻馬使臣金甲雨等 斷罪申報事’條 pp.32~41.

60) 池內宏：“高麗末に於ける明及び北元との關係”『史學雜誌』29-1, 1918, p.61.

61) 『高麗史』卷44 恭愍王 22年 7月 甲辰條.

62) 同上書 同王 23年 2月 甲子條.

도록 하라”고 했으므로 鄭庇 등은 遼東 경유의 行路를 택하여 9월 頭館站에 도착했으나 “遠方 使臣은 境內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 하므로 백방으로 교섭을 벌이다가 돌아왔다.⁶³⁾ 그러나 朝賀의 期日을 넘길 것을 염려하여 指命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海路遣使를 결정하고 10월 周英贊을 賀正使에 임명하여 陳情·謝恩의 表文을 올리게 하는 한편, 判繕工寺事 禹仁烈로 하여금 濟州의 馬匹을 진헌케 하였는데 뜻밖에 11월초에 海上에서 風波를 만나 일행 중 周英贊·書狀官 曹信·押馬官 金天贊·通事 尹方吉·姜師德·舉人 金潛 등 38명이 溺死하고 禹仁烈·宋文中 등은 生還했다. 그리고 진헌하는 禮物와 濟州 馬匹은 모두 滄失되었다.⁶⁴⁾ 이와 같이 당시 高麗와 明과의 관계는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하여 使臣의 왕래에 있어서, 특히 濟州 馬匹의 진헌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런데 恭愍王 23년 4월에는 明에서 禮部主事 林密과 孳牧大使 蔡斌을 보내어서 다음과 같은 中書省의 咨文을 전하였다.

「聖旨를 欽奉하니 “앞서 沙漠(北元)을 征進할 때 길이 멀어 馬匹이 많이 손상되었고 이번에 또 大軍을 내어 추격하려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高麗國에서 앞서 元祖 때 馬匹 2~3만을 耽羅에서 留牧하였으니 자생된 것도 많은 것이다. 中書省은 사람을 보내어 文書를 가지고 가서 高麗國王에게 설득하여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좋은 말(馬) 2,000 필을 가려 뽑아 보내도록 하라.”⁶⁵⁾

즉 앞서 北元 정벌로 馬匹이 많이 손상되었고 이제 또 大軍을 내어 추격하려 하니 耽羅의 好馬 2,000 필을 보내라는 것이다. 이에 麗廷에서는 同年 7월에 韓邦彥을 濟州島에 보내어 馬匹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牧胡 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普 등은 命에 좇지 않고 “우리가 어찌 감히 世祖皇帝가 放畜한 馬匹을 明에 바치리오” 하고 겨우 350 필만을 보내었다.⁶⁶⁾ 이에 明使 蔡斌

63) 同上.

64) 同上.

65) 同上書 同王 23年 4月 戊申條.

66) 同上書 同王 23年 乙亥條. 그런데 馬匹의 수효는 「高麗史」에는 300 필이라 하였으나 末松保和의 前掲書 卷2의 ‘征進馬匹官金義殺害明使走往北元納哈出處事’條 p.19에는 350 필이라 했으므로 이를 택하였다.

등은 “말이 2,000 필에 차지 않으면 皇帝가 반드시 우리를 죽일 것이니, 차라리 王에게 罪를 받겠다”고 협박하면서 2,000 필을 채울 것을 강요하였다.⁶⁷⁾ 이에 낭패한 王은 결국 耽羅의 牧胡 정벌을 결정하고 問下贊成事 崔瑩으로 楊廣·全羅·慶尙·3道都統使로 삼고, 密直提學 廉興邦을 都兵馬使로, 三司左司 李希泌을 楊廣道 上元帥로, 判密直司事 邊安烈을 副元帥로, 贊成事 睦仁吉을 全羅道 上元帥로, 密直 林堅味를 副元帥로, 判崇敬府事 池淵을 慶尙道 上元帥로, 同知密直司事 羅世를 副元帥로 각각 임명하여 그 道의 군사의 將이 되게 하고 知問下省事 金庾를 三道助戰元帥 겸 西海交州道都巡問使로 삼아 耽羅를 토벌케 했는데 戰艦이 314艘, 銳卒이 25,605명이었다.⁶⁸⁾ 이와 같이 官軍이 대규모로 동원되었다는 것은 당시 牧胡의 세력도 수월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恭愍王은 출정에 앞서 崔瑩에게 다음과 같이 敎示하였다.

「耽羅가 海中의 나라로서 대대로 職貢을 닦아오기 500년에 이르렀다. 근자에 牧胡인 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普 등이 우리 使臣을 살해하고 우리 백성을 노비로 삼아 죄악이 貫盈하는지라, 이제 너에게 節越을 주노니 가서 諸軍을 독려하여 기필코 盡殲하도록 하라.」⁶⁹⁾

이것은 앞서 牧胡들이 劉景元 등을 살해한 罪過를 예로 든 것이다. 牧胡들은 亂後에는 일단 항복했다가 다시 叛亂을 일으켜서 使臣을 살해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恭愍王이 濟州島 정벌을 命한 것은 이미 2년전에 있었던 牧胡의 亂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이며 또 明의 貢馬 요구를 존중한다는 의도하에 행해진 것이었다.⁷⁰⁾

67) 「高麗史」 卷 44 恭愍王 23年 7月 戊子條.

68) 同上 己丑條.

69) 同上.

70) 池內宏：前掲論文 p.62.

Ⅳ. 牧胡討伐과 耽羅問題

牧胡 토벌의 命이 떨어진 것은 恭愍王 23년 7월이었다. 군사가 羅州에 도착하자 崔瑩은 榮山에서 關兵하고 여러 將帥들에게 다짐하여 이르기를,

「各道の 배는 서로 섞여서는 안되니 각기 깃발을 세워 표지를 하고, 배에는 頭目官을 두어 행렬을 문란하게 하지 말 것이며, 배가 출발하거든 각기 불 때고 물 길는 일을 정연하게 하고, 만약 倭寇를 만나면 左右로 협격하라. 濟州에 이르게 되면 戰艦이 동시에 같이 나아가 행여 질서를 잃지 말도록 하며, 각각 거점을 잡아 煙火를 통하여 서로 보고할 것이며, 諸軍의 동정은 都統使의 나팔 소리에 따르되 행여 어김이 없도록 하라.」⁷¹⁾

고 하였다. 그 토벌의 경과를 《吏文》에 의거하여 摘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8월 12일 珍島에서 會合을 가지고 출발하여 所閑·甫吉島에 이른다. 同 24일 출발했으나 惡風을 만나 배 30여척이 파손되고 楸子島로 대피하다. 同 28일 濟州 明月浦에 도착하여 屯鑛하고 사람을 보내어 哈赤牧胡 등을 虜유하다. 그러나 그들은 虜유에 응하지 않고 먼저 도착한 11척의 군사와 牧使 李下生을 살해하고 馬步의 人兵을 모우다. 明月村으로부터 氷非(어름비)오름 明近(밝은)오름·今勿오름·曉星(새별)오름·延來(貌來)·洪爐 등지에서 牧胡들은 拒戰했으나 승산이 없자 虎島로 달아나다. 이를 포위하자 牧子 등이 벼랑에서 떨어져 자살하다. 곧 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普 등의 屍身을 거두고 해안에 이르러 斷類하여 衆外에 표시하다. 또 答失蠻 등 101명을 생포하다. 招撫하는 사이에 答失蠻 등이 作亂하자 잡아 죽이고 그 나머지 黨類 및 本土의 官民人 등에게 다시 招撫를 행하고 安業케 하다. 이미 받은 王旨에 의거하여 朴允淸을 牧使, 林完을 安撫使, 金桂生 石天劔을 馬畜使로 삼고 아울러 判官 金仁桂 梁大生 嚴孝忠으로 하여금 守禦케 하고 官馬 1,700필을 揀選하다. 그런데 이 사이에 明月浦에 정박했던 軍船 10척이 惡風으로 파손되어 船隻이 부족하자 말(馬) 930필을 分載하고 나머지 770필은 安撫使 林完에게 收領하였다가 추후 반출케 하다.

○ 9월 22일 乘船, 濟州를 출발하여 火脫伊海島(大小化奪島)에 이르렀으

71)「高麗史」 卷 113 崔瑩傳.

나 逆風을 만나 다시 明月浦로 돌아가다. 同 23일 다시 출발하여 楸子島에 이르러 정박하다.

○ 10월 5일 출발하여 鷲島에 이르러 다시 惡風을 만나자 楸子島로 돌아가 정박하다. 同 18일 楸子島에서 세번째 출발, 또 惡風을 만나다. 珍島·所閑島·甫吉島 등을 지나다.

○ 11월 2일 全羅道 木浦에 이르러 정박하다. 所載한 말 930 필 중 93 필이 도중 海上에서 倒死하고 나머지 837 필을 開京으로 보내다.⁷²⁾

이리하여 崔瑩의 牧胡 정벌은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明使는 崔瑩의 牧胡 정벌을 기다리지 않고 耽羅 牧胡가 처음에 제공한 말 350 필 중 瘦弱馬 150 필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200 필의 말을 가지고 9월 3일 開京을 떠났다. 그 호송관으로는 密直副使 金義가 동행하였다. 그런데 일행이 西京에 이르렀을 때 恭愍王이 薨逝(9월 23일)했다는 通報에 접했고, 이어서 義州·泥城·江界 등의 防禦官으로부터 遼陽邊江 부근에 高鐵頭·胡拔秀 등의 軍馬가 왕래하면서 回還하는 使臣 및 馬匹을 요구하려 한다는 풍문이 전달되었다. 11월 22일 鴨綠江을 건너, 同 24일에는 只孫站에 이르러 宿屯하였던 바, 翌 25일 未明 金義는 그 從人을 거느리고 蔡斌과 그 아들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林密을 체포하여 北元의 遺將 나하출(納哈出)에게 달아났다. 이때 貢馬 200 필도 끌고 갔다.⁷³⁾

이와 같이 明使의 馬匹 요구는 결국 崔瑩의 牧胡 정벌을 초래하였고, 明使의 歸還에 뒤이어 恭愍王의 시해와 金義의 明使 살해라는 二大 사건이 繼起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高麗와 明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高麗의 耽羅 문제는 崔瑩의 토벌로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崔瑩 등이 出陸한 직후인 禡王 元年 11월에는 濟州人 車玄有 등이 官舍를 불태우고 安撫使 林完·牧使 朴允清·馬畜使 金柱生 등을 살해하고 叛亂을 일으켰다.⁷⁴⁾ 이 사실은 崔瑩이 歸京後 典客令 金仲光을 파견하여 宥旨를 가지고 諸島를 安撫하는 과

72) 末松保和：前掲書 卷2 ‘都統使崔瑩討平耽羅及起取馬匹事’條, pp.41 ~ 45.

73) 註 66 引用的 末松保和 前掲書 pp.18 ~ 25.

74) 「高麗史」 卷 136 禡王 元年 11月條.

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 叛亂은 翫年 正月 21 일 洪孫白 등을 濟州島로 파견할 무렵 濟州人 文臣輔・星主 高實開・鎮撫 林彥・千戶 高德羽 등이 군사를 일으켜서 車玄有 등의 賊을 다 誅殺하였는데⁷⁵⁾ 이때 禍王은 明에 使者를 파견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金仲光으로 濟州萬戶 겸 牧使로 삼아 守禦케 하였다. 崔瑩이 林完 등에서 收領케 해서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았던 말 770 필은 新任牧使 金仲光에 의해 解送되어 明의 定遼衛에 交納되었다.⁷⁶⁾ 그러나 다음 해에 또 牧胡의 亂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同年 5월에 濟州萬戶 金仲光이 逆賊 哈赤 姜伯顏 등 13명을 捕斬하고 그 妻子를 光州・羅州에 分配하였다⁷⁷⁾ 하는데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濟州島가 완전히 高麗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언제부터일까? 《高麗史》에는,

「典醫副正 李行・大護軍 陳汝義를 耽羅로 파견하였는데, 이때 明의 朝廷에서는 耽羅馬를 취하고자 하고 또 이 섬이 빈번히 叛하는 까닭으로 李行 등을 파견하여 그 子弟를 招誘하게 하였더니 다음 해 4월에 이르러 李行은 星主 高臣傑과 아들 鳳禮를 거느리고 돌아왔는데 耽羅의 歸順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⁷⁸⁾

고 하였다. 즉 濟州島가 高麗에 복종의 태도를 보인 것은 禍王 13년 4월부터인 것이다. 그러나 明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후에도 다소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禍王 12년 7월 鄭夢周가 明으로부터 宣諭를 받들고 돌아왔는데 그 聖旨 중에

「이제 우리도 여기서 다소의 布匹・絹子・段子 등 물건을 가지고 耽羅에 가서 말(馬)을 사려고 하니 그대들은 거기서 이를 금지하지 말라.」⁷⁹⁾

고 하였다가 翫年 5월 僕長壽가 明으로부터 받고 온 宣諭에는 馬匹 購買問題를 포함한 耽羅問題에 관하여 “耽羅는 나도 본래 약간의 말을 사들일 곳으로 생각

75) 註 72 同條의 p.44.

76) 同上 pp.44 ~ 45.

77) 「高麗史」 卷 136 禍王 12年 5月條.

78) 同上 7月條.

79) 同上.

해 왔다. 그런데 그 뒤에 생각하니 적당치 않기 때문에 말을 거기서 사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의 船舶들이 그 곳에 가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事端을 일으키게 되면 부득불 이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慣例로써 論해보다라도 꼭 거기서 사들일 필요는 없다. 耽羅에서 원래 元朝에 속해 있던 말을 나보고 區處하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빼앗아서 차지할 생각이 있었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취해서 차지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를 관리해야 할 것인데 管理人이 거기 가 있으면 크고 작은 여러 事端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결코 이를 차지할 생각은 없다. 저 耽羅는 그대들 나라와 가까우니 그대들이 관리함이 마땅하다. 내가 耽羅를 차지해서 관리할 생각은 없다. 그대(僕長壽)가 돌아가면 政事를 맡은 宰相들에게 말하여라. 즉 骨子是 오직 至誠을 다하여 그대들 땅을 保守할 것이요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를 모욕하지 말라는 것이다”⁸⁰⁾라고 하여, 明의 太祖는 濟州島에서 말을 살 생각도, 차지할 생각도 없으니 高麗가 말아서 잘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明에서 耽羅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馬匹 문제와 아울러 元室族屬의 棲住地로 耽羅를 이용하겠다는 것이었다.⁸¹⁾ 이미 明의 太祖는 中國의 內地에서 元 세력이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雲南을 평정하고 거기에서 체포한 梁王의 가족을 濟州島에 安置한 바 있고,⁸²⁾ 또 威化島回軍 이후 鐵嶺衛中止를 청하기 위해 明에 건너갔던 朴宜中이 明帝의 旨를 전하는 禮部의 咨文을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耽羅는 예전에 元世祖가 牧馬하던 장소인지라, 이제 元의 子孫으로 來歸하는 자가 심히 많은 터이니 나는 반드시 元의 後嗣를 끊지 않기 위하여 諸王(元)을 島上에 두고 戍兵數萬으로써 이를 호위케 하고 兩浙의 糧穀을 발송하여 공급케 하여 줌으로써 元의 後嗣를 존속케 하고 元의 자손으로 하여금 다시 海上에서 優游케 할 것이라”⁸³⁾고 하였다. 또 同年 12월에는 前元의 院使 喜山·大卿 金麗普化 등을 파견하여 말과 宦者를 구하였는데 이때 喜山 등은 明帝의 聖旨를 전하여 이르기를,

80) 同上書 同王 13年 5月條.

81) 金庠基：前掲書 p.804.

82) 「高麗史」 卷134 禰王 8年 7月條.

83) 同上書 卷137 昌王 即位年 6月條.

「征北하였을 때 귀순해 온 達達親王 등 80 여호를 모두 耽羅에 살게 하고자 하니, 그대는 高麗에 가서 알려져서 사람을 그 곳으로 파견하여 淨便한 곳에 房을 만들게 하고 일이 끝나면 모두 돌아와서 回報하라」 하였으므로 麗廷에서는 典理判書 李希椿을 濟州로 파견하여 可居할 만한 新舊의 房舍 85 개소를 修葺케 하였다.⁸⁴⁾

고 한 것은 明이 元의 皇族 80 여호를 濟州島에 安置시키려고 그 의향을 高麗에 전한 것이다. 그런데 恭讓王 元年 11 월에는 明帝가 拍拍太子의 아들 六十奴와 火者·卜尼를 召還하였는데,⁸⁵⁾ 그들이 濟州에 유배된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明帝가 雲南을 평정하고 梁王의 家屬을 濟州에 安置하였다”고 한 기록과 약 2, 3년 전후한 시기로 보아진다. 이때 拍拍太子도 같이 유배되었으며 恭讓王 4년 3월에는 明帝가 다시 梁王의 자손인 愛顏帖木兒 등 4명을 耽羅에 보내어 拍拍太子 등과 함께 完聚·居住케 하였다.⁸⁶⁾

그러면 明帝가 六十奴 등을 소환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高麗史》에

「六十奴가 濟州로부터 왔다. 乙亥에 贊成事 鄭夢周에게 命하여 宴慰케 하니 六十奴가 말하기를 “耽羅産의 馬가 上國에 알려진 지 오래데 내가 耽羅에 있는 지 5·6 년이 되어도 馬의 좋은 것은 심히 적은지라, 그러므로 지금 京師에 朝會하는데 한 필의 말도 幣帛할 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鄭夢周가 이를 王에게 啓聞하니, 王이 말하기를 “上國이 자주 우리에게 말을 바치라고 함은 耽羅가 있기 때문이다. 六十奴가 말한 바가 이와 같다면 我國에 良馬가 있고 없음을 알림을 기다릴 것 없이 上達될 것이다.”⁸⁷⁾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六十奴가 濟州로 유배될 때 明帝의 命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六十奴의 말과 같이 耽羅에는 明에 進獻할 만한 馬匹(良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明에서는 끝까지 馬匹 進獻을 요구했던 것이며 이 점이 결국 明에서 耽羅 문제를 자주 거론케 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六十奴는 同王 2년 4월에 火者·卜尼 등 일행과 明으로 갔다가 同年 10월에 濟

84) 同上 12月條.

85) 同上書 卷 45 恭讓王 元年 11月 壬午條.

86) 同上書 卷 46 同王 4年 3月 乙巳條.

87) 同上書 卷 45 同王 2年 4月 甲戌條.

州로 돌아왔는데, 그는 1년이 지나 사망하였다고⁸⁸⁾ 한다.

V. 結 論

이상으로 牧胡의 亂을 중심으로 하여 元·明交替期에 있어서의 濟州島 문제와 그와 관련된 麗元·麗明과의 관계를 대략 살펴보았다.

牧胡는 元에서 濟州島 목장에 파견하여 牧馬에 종사케 했던 蒙古人으로서, 이들은 恭愍王代에 들어오면서 그 세력이 강성하여 자주 반란을 일으켰다. 그 원인은 元·明交替期에 있어서의 恭愍王의 排元政策과 舊疆收復政策, 濟州島의 歸屬問題, 明의 馬匹 요구 등이었다. 恭愍王 5년에 일어난 忽古托 등의 亂은 첫째 예에 해당하며, 同王 11년의 古禿不花 등의 반란도 이에 해당하나 그들이 亂後 元에 예속 내지 元의 官府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濟州島의 歸屬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濟州島는 三別抄 정벌 직후 元에 예속된 이래 전후 약 100년간 때로는 元의 직할지가 되었다가 때로는 高麗에 환부되는 등 그 귀속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牧胡들은 그들의 직업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였고, 더우기 高麗에서 파견된 官吏들의 不法으로 이에 견디다 못해 島民들도 불가항력으로 牧胡의 亂에 가담하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麗廷에서는 叛亂의 素地를 없애기 위해서는 武力 정벌도 불사했던 것이며, 당시 元으로서도 高麗의 이러한 태도에 강압적으로 일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어서 一國內의 諸叛亂과 國力の 弱化—결국 高麗의 정책에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元이 망하고 麗明通交가 이루어지면서부터는 高麗에서 먼저 明에 使臣을 파견하여 濟州島의 歸屬 문제와 馬匹의 진헌 문제 등을 거론하였고 明도 우선은 高麗의 교섭 조건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明의 여러 차례에 걸친 馬匹 요구는 결국 牧胡를 자극하여 叛亂을 유발하게 되었고 高麗의 濟州島 정벌, 金義의 明使 살해라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元末 濟州島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元의 順帝가 만일의 경우

88) 同上書 同王 2年 10月 甲戌條.

濟州島로 피난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避難宮廷을 짓게 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宮廷은 元이 망함으로써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후 明初에 와서는 다수의 元室族屬을 濟州島에 安置하는 결과를 가져왔다.